

# “배역 꼭 따고 싶어요”...떨림 속에도 열정의 연기

광주시립극단 객원배우 공개오디션 현장

정안나 연출 ‘섬 옆의 섬’ 내달 공연 자유 대사·춤·노래 등 퍼포먼스로 지원자들, 자신만의 연기 강점 어필 배역마다 주어진 다른 대사 흥미로워

“아직도 너무 떨림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어요! 오늘은 연기 레퍼토리와 손담비 ‘토요일 밤에’ 안무를 선보였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오디션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온 이유진(여·27)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심사 내내 재기발랄, 패기 있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지난 5일 광주예술의전당 내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은 아침부터 가득 모인 배우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은 광주시립극단이 내달 선보이는 ‘섬 옆의 섬’ 객원배우 오디션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 지원자들 상당수는 무대경험이 있었지만 오디션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범중 작가가 쓴 ‘섬 옆의 섬’은 지난 2020년부터 광주시립극단이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창작희곡 공모 2회 당선작이다. 목표 출신 극작가 김우진, ‘사의 찬미’를 부른 윤심덕의 현해탄 투신 에피소드를 정안나 연출가가 새롭게 해석해 남도 다도해 주민들이 겪는 시대적 아픔과 희망을 극화(劇化)하는 시놉시스다.

이날 오디션에는 일반 면접과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지원자들은 저마다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오디션에 임했다. 어떤 이는 개성있는 모습으로 부채를 흔들고 등장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판소리 ‘심청가’를 연행하는 것으로 자기소개를 대신했다. 심사위원들은 익숙한 듯 담담한 표정으로 지원자들의 ‘끼’를 가늠했다.

가사 역할을 연기하는 지원자도 있었다. 장도국(33) 씨는 예술의전당 현장을 지적하는 연기를 펼쳤는데 날카로운 지적과 브리핑은 실제 기자들의 모습을



20~30대 여성 BJ역에 도전한 이혜원 씨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감나는 연기를 보여주는 모습.

방불케 했다.

작품 ‘섬 옆의 섬’이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아픔을 다루는 만큼 오디션 지정대사에는 연대와 회복이라는 주제가 여실히 녹아 있었다. 지원자들은 지정대사의 실제 발화를 통해 슬픔을 극화하는 연기를 보여줬다.

여러 배역마다 다르게 주어진 대사는 흥미로웠다. 소리꾼, 주빈, 유튜브,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특성과 애환이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자신만의 연기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자유대사, 춤·노래 등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심사 도중 정안나 총연출은 참가자들에게 “눈앞에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다고 가정하 뒤, 홀로 바다에서 목 놓아 소리쳐보라”고 요청했다. 이에 응해 지원자들은 적막한 바다에 홀로 남겨있는 듯한 상상을 하며 고향을 찾았다.

그러나 한 지원자는 ‘고향치리’는 연출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슬픔을 삼키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안나 총연출은 “너무 큰

슬픔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 슬픔을 삼키게 될 때가 있다”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향’ 치는 모습을 연기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했다.

한편 작품 속 ‘유튜브 역’에는 실제 유튜브 지원자들도 있었다. 유튜브에서 채널 ‘광주남매’를 운영하는 이혜원(여·31) 씨는 광주 KBS ‘오만원뿔’ 등을 진행한 적이 많은 방송인이다. 그동안 광주시립극단이 제작한 연극 ‘세 자매’의 나타샤역 등을 맡는 등 연기 경력도 다채롭다.

극작가 역할에 도전한 이영환(37) 씨도 소감을 묻자 “오늘은 사투리가 많은 독백 연기를 준비했다”며 “대사에 행동을 곁들여 감정을 풍부하게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뒀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 선발과정을 거쳐 연극 ‘섬 옆의 섬’은 다음 달 24~25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지원자들이 보여준 흥과 끼, 연극에 임하는 모습은 광주 극예술계의 초석이자 열정에 불씨 지피는 불일지처럼 다가왔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In a dream’

## 서로 다른 경계의 두 식물...공존의 이유

이은영 개인전, 19일~11월5일 우제길미술관

‘서로 다른 경계의 두 식물이 만나는 지점’을 에코톤이라 한다. 이곳에서는 식물이 만나 어울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기도 한다. 생명체가 ‘따로 또 같이’ 존재하는 다채로우면서도 역동적인 공간이다.

이은영 작가의 자연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인간과의 관계는 늘 연계돼 있으며 뿌리를 매개로 삼리적 존재로서의 유대감을 갖는다.

생태학적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풍경을 보여주는 이은영 작가의 전시가 열린다.

우제길미술관에서 오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에코톤-공존의 이유’.

다분히 철학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인 주제이지만 서로 다른 생명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그동안 작가는 꽃을 비롯해 물고기, 민들레 들을 모티브로 희망을 이야기해 왔다. 이번 전시 또한 그 연장선에서 해바라기, 양귀비꽃 등을 중심으로 자연의 생리적인 특징과 인간관계 등을 모색한 작품

이 주를 이룬다.

‘In a dream’은 환상적이면서도 유니크하다. 해바라기와 연꽃 사이를 붉은 금붕어가 헤엄쳐 다닌다. 현실에서는 꿈꿀 수 없는 장면을 작가는 그림을 통해 자유롭게 풀어냈다. 다른 경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이 작가의 화폭에서는 이웃처럼 가깝고 격이 없다.

작가는 모든 생명체가 조화롭게 존재하는 에코토피아를 상정한 것 같다. 경계를 무화시키지만 개별적으로 분립돼 존재하는 생명들의 고유성을 인정한다. 한편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아귀다툼의 현장을 에둘러 꼬집는 것 같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다양한 집단 내의 갈등을 지적하는 것도 같다.

한편 김경희 박사는 “그녀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내부세계로 이어지고 심리적 존재의 뿌리에서 찾고 표현되어지고 있었다”며 “자연의 미메시스로부터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방법과 소통의 어우러짐을 통한 융합을 깨닫고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한다. /박성현 기자 skypark@

## 광주극장을 사랑했던 故 김용윤을 기억하다

극장 유일 평생회원...광주극장, 15일 ‘카메라 맨’ 무료관람 특별행사

‘광주극장 100년 관객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광주극장에서 100편 이상의 영화를 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항상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 관하여’라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가 뽑은 영화를 함께 보는 기획이다.

광주극장이 오는 15일(오후 2시50분)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광주극장의 유일한 평생회원으로, 지난 8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고(故) 김용윤(polsike)씨를 기억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누구보다 광주극장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위한 의미있는 기획이다. 광주극장은 그의 극장 사랑에 대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무료관람으로 진행한다.

함께 감상할 영화는 ‘스물 몇번 분’ 영화 ‘헤드윅’을 비롯해 ‘킬러들의 도시’, ‘더 폴-오디에스와 환상의 문’ 등과 함께 그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 10’ 중 하나로 꼽았던 버스터 키튼-에드워드 세드윅 감독의 ‘카메라 맨’ (1928)이다.

‘카메라 맨’은 스냅사진 기사인 주인공이 영화사에서 비서로 일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찍시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는 이 영화에 대해 “올게 하다가 웃게 하다가를 반복해 나를 미친 놈을 만들어 버리는 데 가슴 속 깊은 곳에 떨리는 감동이 쌓인다”라고 적었다

극장을 자주 찾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그는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감독 등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 극장을 찾는 이들을 앞장 서 맞이하고 광주극장 상



광주극장을 사랑했던 고(故) 김용윤. <광주극장 제공>

영작과 좋은 영화를 널리 알리는 데 열심이었던, 광주극장의 열혈팬이자 홍보대사였다.

한편 극장 홈페이지에 실린 김용윤의 아카이브 인터뷰는 지난 2010년 ‘전라도 닷컴’에 실린 ‘영화에 빠지다! 광주극장에 빠지다!’(남신희 기자) 전문을 실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근·현대 역사와 문화’

광주문화도시협, 18일부터 강좌

광주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시민문화강좌가 마련됐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가 주최하는 ‘꾸밈스러운 광주 근·현대 역사와 문화’는 숨겨져 있는 지역문화 가치를 발견하고 의의의 의미와 숨결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좌는 오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매주 수·금 오후 3시) 5·18기록관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강의를 ‘광주 학생들이 앞장선 독립, 민주화 운동’(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을 비롯해 ‘근대도시 광주와 방직공장’(한정훈 전남대 교수), ‘건축물로 보는 광주의 근대와 현재’(신용주 조선대 교수), ‘현대시로 만나는 무등산’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11월 1일에는 ‘길 따라 만나는 최초이야기’를 주제로 김경수 소장의 해설과 함께하는 문화탐방도 펼쳐진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0명이며, 수강료는 3만원(교재비와 답사비 포함). 희망자는 10월 17일까지 전화접수하면 된다.

한편 박병주 상임대표는 “이번 강좌는 광주의 근·현대 대기에 걸친 독립, 민주화운동, 도시, 건축물 등 다채로운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며 “우리 지역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깊이 있게 숙고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전통문화관 국악창작공연 ‘Old from new’, 14일 서석당

“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토토전)”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 전통문화관은 ‘토토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음악, 연희,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토요일 상설공연으로 마련해오고 있다.

토요일 상설 공연으로 선보이는 국악창작공연 ‘Old from new’가 오는 14일(오후 3시) 서석당에서 펼쳐진다. 동서 음악장르를 아우르는 연주단 NFO(New from Old) 앙상블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먼저 ‘Flowing’은 흐르는 물결을 묘사한 곡인데, 마찰을 통해 소리 내는 우리 찰현악기 해금, 아쟁으로 섬세한 물의 흐름을 표현한다.

이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음악에 투사한 ‘희로애락’, 민요선율에 변화를 준 ‘아리랑’, 이슬우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모

티브 삼은 곡 ‘Belling the cat’,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정경을 그려낸 ‘Magic Hour’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마련돼 있다.

동서양 악기의 선율도 어우러진다. 이소미(해금), 최민서(가야금) 등이 동양악기를 연주하며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베이스 등 서양악기도 들을 수 있다. 지휘는 김지현(계명대 초빙 조교수), 2018 프린세스 아스트리트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한 김유원이 맡는다.

한편 연희단 청연의 연희 공연도 예정돼 있다. ‘무등산의 청연거리’라는 제목으로 오는 21일(오후 3시) 너털마당에서 진행. 이외 매주 토요일 3시에는 절기체험, 전래민속놀이, 소원지 쓰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참가할 수 있다.

문의 및 사전접수는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팀. /최류빈 기자 rubi@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서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